

#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 ‘천차만별’

### 미세먼지로 관심 증가 속 신청자 일부 ‘탈락’ 정부·자치단체 관련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부족해 신청 인원을 모두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어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이 한정된데다 선정기준 또한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통상 신청에 따른 선착순을 매기거나 신청차량의 노후화 정도에 우선순위를 뒤 책정하고 있다.

예산은 국비와 각 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광주시의 경우 노후차량 지원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2억 700만 원(159대)에서 2017년 4억 200만 원(295대), 2018년엔 11억 500만 원(802대)을 지원했다.

첫 시행 당시에는 신청자 수가 몰리지 않은 탓에 신청인원이 거의 모두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올해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금은 총 33억 7,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약 2,100대가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신청보조금에 따라 2,100대보다 지원이 더 될 수도 덜 될 수도 있

다. 이에 반면 올해 광주시 노후경유차량 신청대수는 2,944대가 접수돼 844대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광주시의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노후경유 차량은 7만여대다. 시는 정부에 요청해 내년에는 5,000여대의 노후경유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달외달팽이마을 벽화그리기 행사

전남도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12억 2,128만 원을 확보해 여수와 순천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순천·광양과 구례·강진·신안을 제외한 17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2개 시·군이 참여해 70억원의 예산을 확보, 5,393대를 폐차했다.

하지만 신청자 전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데엔 한계가 있다.

완도의 경우 지난 2017년 18명이 신청해 18명 전원이, 2018년엔 59명 신

청자 모두가 선정됐다. 이에 비해 올해의 경우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관심이 많아진 탓에 229명이 지원을 신청, 이중 202명이 선정됐다.

신안의 경우도 지난해 지원사업에 124명이 신청, 이중 111대만 지원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308명에서 255명이 선정됐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업 대상 기준에 대한 중량제한도 풀리고 미세먼지에 따른 관심도도 높아지다 보니 사업 신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면서 “매년 예산을 늘려 환경부추에도 지원요청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 전남 학생 내년부터 아침 간편급식

도교육청, 시행방안 등 검토

전남도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일부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한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아침 간편급식을 하기로 하고 대상·예산에 대한 검토와 준비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초·중·고생 19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일 먹는다’고 답한 학생은 56.8%, ‘가끔 먹는다’ 또는 ‘먹지 않는다’는 학생은 42.9%였다.

전남은 맞벌이 가구 비중(57.9%)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침급식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그러나 아침과 저녁 식사는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가 비용을 지급하는 고교와 달리 초·중에서는 아침 식사비용을 충당하기까지 법령·예산 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시행할 경우 연간 458억원으로 추산되고,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12억 7,000만원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내년 3월부터 어떤 형태로든 무상 아침간편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 모텔서 중년여성 살해 20대 ‘징역 17년’

법원이 모텔에서 중년여성의 양손과 목을 묶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훔쳤다”며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 한 모텔에서 SNS로 만난 A씨(당시 57세)를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광민 기자

## 전남지역 돌풍...1cm 우박 쏟아지기도

전남 일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쏟아졌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부터 약 4분간 흑산도 지역에 직경 1cm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다. 우박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돌풍과 함께 소란스럽게 내렸다.

이날 오후 1시께는 나주시 공산면 일

대에도 굵은 우박이 내렸다. 공산면 일대에는 배 과수원이 많아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우박은 대기가 불안해질 때 얼음 결정체들이 응집돼 만들어진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대기는 상하층 온도 차이가 커 매우 불안정해 곳곳에서 천둥과 번개가 관측됐다. /김종찬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집단소송 537명 신청

시민단체, 원고 최종 선정 이달 내 소송 제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 모집이 끝난 가운데 12일 동안 537건이 접수됐다.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5일까지 일본 전범기업 상대 집단소송 참여 신청은 537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25일에만 42건을 시작으로 매일 40~50여건의 소송 참여신청이 접수됐으며,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경우도 48건이었다.

접수가 잇따르면서 참혹한 강제동원의 실상과 전범기업 만행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생존 피해자인 김 모씨(94)는 18세이

던 1944년 7월에 끌려가 1년간 일본 도쿄 다이치철공소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김씨는 “매일 오전 6시부터 12시간 내내 일만 했다”면서 “마감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관리자들의 구타는 흔히 벌어지는 일상이었다”고 기억했다.

윤 모씨(58)는 “1942년 당시 26세였던 아버지가 면사무소와 동네 이장의 회유와 압박에 못이겨 일본 탄광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했다”고 토로했다.

시민모임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접수서류를 검토한다.

이 중 ▲강제동원지역 특정 ▲구체적 피해내용 ▲당시 기업과 현존기업 지위 승계 여부 등이 확인되는 피해자들을 1차 원고로 확정할 예정이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2주에 걸쳐 피고 기업이 특정되는 사례를 선별, 원고를 확정한다. 이후 1차 소송 원고를 대상으로 소송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소송은 이달 안에 강제동원 사실이 드러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지법에 낼 계획이다. /김종찬 기자

### “술이 사람을 마셨네”



○...술에 취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말리는 행인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경찰서행.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 모씨(23)는 이날 새벽 1시께 서구 치평동 한 지하철역 인근 길거리에서 인사불성인 상태로 택시기사 고 모씨(55)를 폭행하고, 이를

보고 제지하던 임 모씨(31)와 서 모씨(29·여)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젊은 나이에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택시비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발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행인들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겠느냐”며 “이는 사람이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 것이다”며 혀를 꼴꼴. /김종찬 기자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 급매 - 8500만원

##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7,500만원

##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

문의. 010-6834-7400